

IP 컨설팅 POOL 구성,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 등

2001년까지

정

보제공 (Information Provider: IP) 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과 축적 및 활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IP 산업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정보산업발전과 사회전반의 생산양식 전환을 주도하고, 지식·정보의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IP 산업은 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재, 개별적인 마케팅 곤란, 내수 시장의 기반 취약,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악순환의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IP 산업을 21세기 국가성장의 주도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정보제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

며, 정보제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충과 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IP 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IP 산업을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산업과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가상공간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외화 획득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신지식인 양성과 기업 및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IP 산업의 현황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연평균 100%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2002년에는 2억 8천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은 정보콘텐츠를 인터넷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시

장의 규모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온라인 정보시장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DB 형태 정보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최근 1~2년 동안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소호(SOHO) 시장의 출현으로 인하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IP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표>와 같이 DB 형태의 IP 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37.4%, 제작기관은 32.2%, 이용자 수는 75.9% 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IP 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IP의 50% 이상이 5명 이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명 이하의 직원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92.8%의 IP가 전체 IP 자본금의 2.5%

정보통신부는 IP 산업을 21세기 국가성장의 주도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정보제공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정보제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충과 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3년에 걸쳐 다단계 추진

■ 안계성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 정보조사과 과장

만을 점유하고 있어 자본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 온라인 DB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연평균 33.1%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2,158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는 미국의 1/3, 일본의 1/2 수준이며, 데이터베이스당 매출액은 미국의 1/100, 일본의 1/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IP 산업의 문제점

국내 IP 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내수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것과 제작업체의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① 내수시장의 기반취약

국내에서는 인터넷 및 PC통신 가입자 기반이 아직 협소하여 IP의 수익률이 높지 못하며 이는 IP의 콘텐츠 개발을 지연시키고, IP의 취약은 다시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의 대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IP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② IP의 전문성 부족 및 영세성으로 인한 마케팅 능력 미흡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IP가 단순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IP업체들은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마케팅이 곤란한 상황이다.

③ 창업 및 개발환경 열악

IP창업자의 배경이나 창업동기는 창의적인 기획이나 DB 및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없이 서류에 편승한 창업이 대다수를 이룬다.

또한 IP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기존 영상자료, 국가보유 기록물 등의 원시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정리가 미흡하고 이를 멀티미디어화하는 작업이 미흡하다.

④ 해외 진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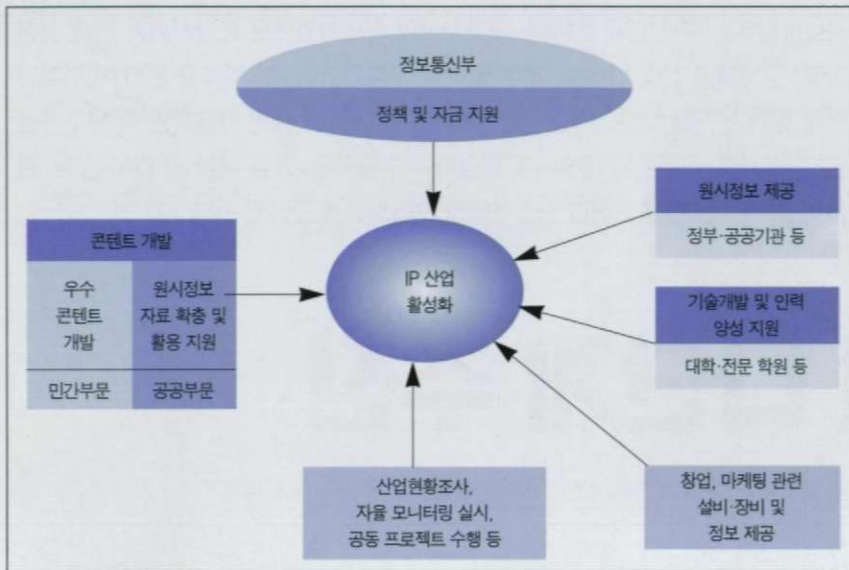
국내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정보는 증권/부동산 정보이며 국내 인기 IP라 할지라도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가

(표) DB 형태의 IP 산업 현황

(단위 : 개, 만명, 억원, %)

구 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평균 증가율
DB 수	460	714	907	1,061	1,616	2,493	3,095	37.4
DB제작기관 수	254	389	397	438	551	919	1,357	32.2
DB이용자 수	14	25	48	73	157	313	415	75.9
매출액	388	454	501	745	917	1,240	2,158	33.1

※ 출처 : 1998 데이터베이스 백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98년도 매출액은 예측치)



(그림) IP 활성화 추진 전략

1. IP 창업 환경 조성

- 소호(SOHO) 지원실 확대 설치
- 우수 IP 사업자에 대한 고가 공동 활용 장비 지원
-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IP 사업 컨설팅 POOL 구성

IMF 체제하에서 실직자 및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IP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경영기법상의 취약성으로 IP 창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버 구입비, 라우터 구입비, 프로토콜 탑재비, 메뉴 등록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멀티미디어화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의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SOHO 지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IP 창업자에게 사무실 및 집기 등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활용 장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가의 콘텐츠 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동영상 처리,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전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공동활용 장비지원센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IP 사업자에게 콘텐츠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을 통한 융자, 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창업자의 대부분이 마케팅이나

없고 특히 영문화된 DB가 거의 없다. 따라서 IP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으로 수출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고 외국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⑤ 관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취약

DB관련 기술의 경우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술의 경우 제작 기반기술의 확보가 미흡하고 요소기술만 일부 개발되어 있어 저작도구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IP의 영세성과 소규모로 인하여 보유인력의 전문화가 어렵고 전문교육기관의 부족과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미흡하다.

⑥ 관련 법·제도의 정비 미흡

IP 산업이 기술개발 분야로 분류되지 않아 세법상의 지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고, 국내 저작권법상 소재의 선택·배열의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DB는 법적 보호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DB에 대한 투

자의욕이 위축되어 있다. 또한 IP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음란정보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IP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국내 IP 산업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으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고급 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정보의 축적을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관련 직업군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의 IP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IP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의 축적을 통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관련 새 직업군 및 고용을 창출하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그림)과 같다.

IP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 및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창업에 대한 기술, 자본 유치와 경영기법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IP 컨설팅 지원 풀(Pool)을 구성하여 기술자문 및 창업과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콘텐츠 개발 지원

- 우수 콘텐츠 개발 지원
- 원시정보자료 확충 및 활용지원
 - 국가차원의 전략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
 - 정보통신 메타 DB 구축
 - 국가보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촉진
 - 공공정보의 상용화 지원

정부는 개발 가치가 있는 우수 콘텐츠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ISP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IP에 대해서는 기존 콘텐츠의 연계·확대 및 기능 개선, 멀티미디어화, 영문화, WEB 콘텐츠화 등에 사용될 것이고, ISP를 통하지 않는 IP 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및 기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원시정보자료의 확충 및 활용지원을 위하여 민간보유 정보와 정부보유 정보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계획하였다. 기존에 실시한 정부 추진 정보화근로사업 등은 정부보유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민간이 보유한 국가적 유산, 역사, 지리 등 국가 인프라의 성격을 지닌 소재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3년간 매년 100억원씩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정보, 유익한 정보로서 공공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상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정보를 분석 가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 및 정보 획득과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의 정보 보유 기관인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보 활용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보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촉진 계획은 이용빈도가 높은 정보, 신속한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와 최신 자료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고, 학술·문헌, 과학기술·산업, 일반분야 순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미 구축된 지식정보 DB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연계될 것이며, 향후 구축될 지식정보 DB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기반 위에서 구축될 것이다.

공공정보의 상용화 지원 계획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 중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하여 목록 DB로 구축함으로써 민간이 공공정보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정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미 1998년도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225종의 자료를 조사한 바 있고, 향후 조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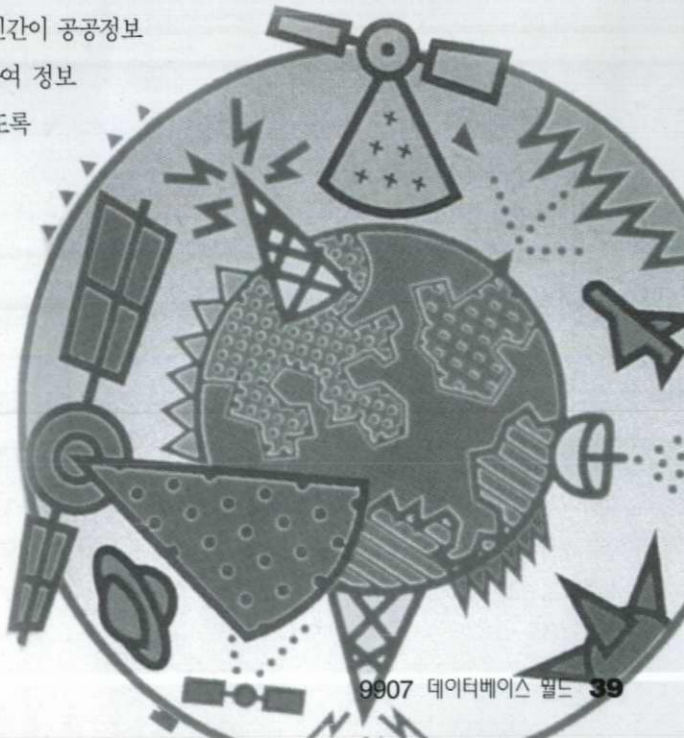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3. 국내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망 고도화 추진
- 우수 IP 선정 및 홍보사업
- PC 통신회사와의 IP 공동 마케팅 지원
- IP·S/W 전문 사이버마켓을 통한 IP시장 활성화 촉진
-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
- IP 업체 해외진출 지원사업

IP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시장의 저변 확대가 관건이 된다. 정부는 '100만 ID 갖기 운동'과 '국민 홈페이지 갖기 운동' 추진을 통해 정보이용자층 확대를 추진하고, 국민 정보교육 기본계획의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국민의 컴퓨터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의 이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간전송망 고도화, 가입자망의 고속화 등 인터넷 기반 확충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 수행할 것이다.

국내 IP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광고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제품이 사장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제적인 마케팅을 통한 IP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IP 업체의 독자적인 홍보 및 마케팅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 마케팅 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우수 IP 선정 및 홍보사업, PC통신회사와의 공동 마케팅 지원, IP·S/W전문 사이버마켓을 통한 IP 시장 활성화 촉진,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 IP 업체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우수 IP 선정 및 홍보 사업은 분기별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 IP를 선정하여, 우수 IP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시 가점 부여, 채무보증 우대지원,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병역특례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IP 업체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PC통신회사와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PC통신회사와 IP간의 정기 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 협력 체제 구축, 마케팅 정보 공유를 통한 IP 사업의 발전 방향 제시, 각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IP 정보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각종 전시 행사에 공동 IP 전시관 구성을 지원하며, PC통신회사의 광고시 IP 안내를 일부 할애하거나 공동 광고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게 된다.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는 한일 공동의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하여 IP 사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한·일 디지털 콘텐츠 페스티벌, 한·일 IP 산업 포럼 및 컨퍼런스를 일본측과 협의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 IP 업계의 영세성으로 해외 유통 채널과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제품·시장별 수요자의 요구파악 능력이

취약하며, 해외 마케팅 인력, 전문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IP업체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IP 수출업체 집중 지원 체제 구축, 수출유망업체들의 해외 전시회 참여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유럽·미국 등 수출유망시장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업체·벤처캐피탈회사·법률회사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중장기적인 수출 고도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4.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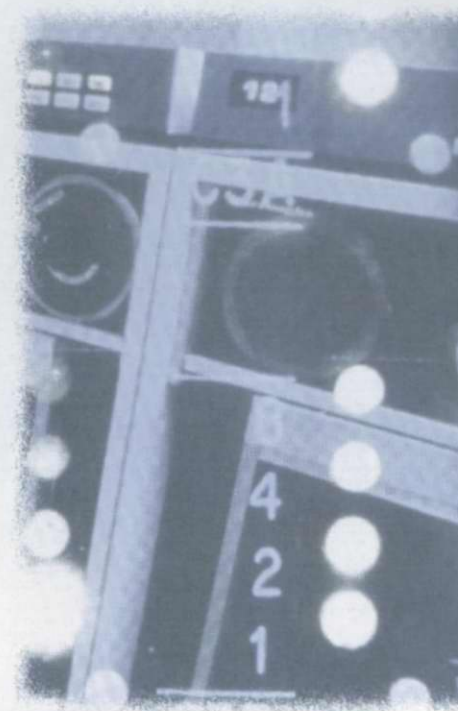
- IP 관련 기술 개발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구축
 - 교육여건 조성
 -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 인력 활용지원체제 구축

IP 관련 기술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문자 위주의 정보 서비스에서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 관리, 유통을 위한 공통 요소기술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DB 구축 및 서비스 공통 요소 기술 개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도구 기술 개발, 공동 애로기술 발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통시 표준화 활동이 부족하여 데이터베이스간 데이터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 등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DB 관련 표준화를 데이터베이

스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 수용 및 신규 표준 과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토록 할 것이다.

IP 산업 관련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도 커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IP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내실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P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이 전무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IP 분야 전문가에 대한 파악 및 활용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표준 교과과정 및 교재제작, 전문강사 인력 풀(Pool) 구성 및 운영,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과정 설립 추진, 특성화 고교 지원 등을 계획·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IP 관련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증제도 운영, 구

인·구직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해외 연수 및 병역 특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5. IP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IP 산업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 고품질 콘텐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DB 보호 법체계 마련
- IP 업체 단체의 정비·총실회
-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IP 사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됨

에 많은 비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불법 복제가 용이하므로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할 경우 내실있고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 의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국제적인 추세를 견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PC통신, 인터넷에서 성인 정보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여


불건전 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 IP 관련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다수 구성됨으로써 IP 업계 전체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현안 문제 해결과 업계 전체의 의견 수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IP협회, 한국인포삼협회, 한국전화정보협회 등 기타 관련단체의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해체·통합을 유도하여 IP 관련 사업자 단체 통합조직을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P 육성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지름길

IP 산업은 정보산업발전과 사회전반의 생산양식 전환을 주도하고, 지식·정보의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조기 정착을 가져오는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IP 업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 부재, 개별적인 마케팅 곤란, 내수시장의 기반 취약,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국내 IP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IP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IP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함으로써 향후 IP 산업을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식정보화 사회 건설의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한 정부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학계, 기타 기관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IP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IP 사업이 기술개발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 사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IP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요원 부족,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체계 미흡, 인터넷을 통한 해외 불건전 정보의 유통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 미비로 원활하게 규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DB 등급제 실시, 자율모니터링 실시, 국내 DB 신고제 실시 등을 통해